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12.1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프랑스, '니스 테러범' 살인·테러조직 가입 혐의로 기소
 - 12.7 佛 수사당국은 지난 10월 노트르담 성당에서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튀니지 출신의 「브라힘 아우이사우이」(21)를 '테러 관련 살인·살인미수' 및 '테러 범죄조직 가입' 혐의로 구속·기소했다고 발표
 - * 同인은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수사당국이 진술을 받아내는데 난항
- 유로폴(EU 경찰기구), 코로나19 백신 노리는 테러 경고
 - 12.8 유로폴은 영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, 테러조직 및 범죄단체가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백신 운송 트럭 탈취 등 유통망을 혼드는 테러를 벌일 수 있다고 경고
 - * 인터폴도 코로나19 백신은 '액체 금'과도 같으며, 테러 및 범죄 가능성 경고
- 뉴질랜드, '크라이스트처치 테러' 막을 수 없었던 사고로 결론
 - 12.10 뉴질랜드 왕립조사위원회는 '19.3월 발생한 '크라이스트처치 테러' 조사결과 범인의 범행계획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사전에 '막을 수 없었던 사고'로 결론 내리고, 허술한 총기 소지면허 관리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집중된 대테러 정책의 문제점 도출
 - * 조사위는 유튜브가 극우성향 웹사이트보다 테러 정보와 영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

아·태평양

- 서울중앙지법, 알카에다 연계조직 지원 러시아인 刑 가중
 - 12.4 서울중앙지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이슬람교도들에게 테러단체 선전 및 모금활동을 벌여 '알누스라 전선*' 조직원에게 약 2,000만원을 전달한 러시아인에게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(1심은 2년 선고)
 - * 시리아·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분파 조직 / 테러단체지정 : UN·美·英

○ 인니 경찰, '이슬람 수호전선' 지도자 지지세력과 총격

- 12.7 인니 경찰은 자카르타 동쪽 50km 지점에서 이슬람 과격단체 '이슬람 수호전선'*(FPI) 지도자 「리지크 시하브」** 추종자 10명과 총격전을 벌여 6명을 사살하였으며 도주한 4명을 추적중이라고 발표

* 1998년 설립된 인니의 이슬람 과격단체 / UN·미국 등에서 테러단체로는 未지정

** 인니 강경 무슬림의 영웅같은 존재로 지난달 수천명이 모이는 종교행사를 열어 코로나 지침 위반혐의로 경찰이 소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불출석하는 등 경찰과 대립

○ 호주, 크리스마스 테러 위협 경고

- 12.8 호주 의회정보위원회 「앤소니 번」 부위원장은 이슬람 극단 주의자 및 극우주의자들이 테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붐비고 경각심이 낮아지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, 연휴기간 중 테러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

* '16.12.23 호주 멜버른에서 크리스마스 겨냥 폭탄테러 모의범 7명 체포

미 주

○ 美 대통령, 소말리아 주둔 미군 철수 지시

- 12.4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美 대통령이 소말리아에 주둔하며 정부군의 알샤바브 소탕작전을 지원중인 미군 700여명에 대해 내년 1.15까지 철수를 지시했다고 보도

* 외신은 한편 미군 철수시 테러 증가 등 치안상황 악화 가능성 우려

중 동

○ 이스라엘, 자국민에 아랍국가 방문 자제 권고

- 12.3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 핵 과학자 암살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자 “최근 이란의 위협과 과거 테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”며 자국민의 아랍국가 여행자제를 권고

알카에다, 이라크 정부청사 등 연쇄 폭탄테러

- '09.12.8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정부청사와 법원을 겨냥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, 120여명 사망·450여명 부상
 - 범인들은 먼저 노동부·내무부 청사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테러 공격 후, 이어 법원에서도 2번의 폭탄테러를 자행
 - 테러 대상이 된 정부청사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청사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의 피해도 다수 발생
- 同 테러 발생 이후, 알카에다 측은 SNS를 통해 이번 공격은 자신들이 수행한 것이라고 하며 배후를 자처하고, 이라크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테러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
- 이라크 정부청사를 겨냥한 테러는 같은 해 8월 및 10월 2차례 더 발생하였으며,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은 테러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을 목적으로 테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- '09.10.25 법무부·바그다드주 청사 등을 겨냥한 차량폭탄 공격으로 150명 사망
- '09.8.19 재무부와 외무부 겨냥 차량폭탄 공격으로 101명 사망, 600여명 부상

테러 상식

< 알카에다(AQ) >

- (목표·결성) 전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하여 '88년 결성



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, 영국·호주·인도·러시아 등
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(AQIM), 예멘 알카에다(AQAP),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(HTS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'01.9 美 항공기 4대를 납치,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 테러(사망 2,996명)